

## 96 남녀대협 총노선 토론 제안서

수신 : 각 대학 총여

발신 : 제 9기 남녀대협 정책실

들어가기에 앞서 -----

우리일꾼중에는 여학생운동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길이었거나 힘없고 진척없는 운동이라는 패배적인 사고를 하고 계실수도 있겠습니다. 87년 이후 대중적인 여학생 조직을 건설한 이후 여학생운동은 십년이 거의 다 되고 있지만 웬지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학생운동을 제대로 총화하지 못하고 당면한 어려움을 개척하려는 고민에서 출발하기 보다 신세만 한 탄하고 있는, 체념의 치마폭을 벗어던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여학생운동의 특수성은 학생운동속에 여성운동이 전문적으로 행해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성운동의 궁극적 지향점은 인간해방이며 즉 인간이 자주화를 이룰 수 있는 사회건설인 것입니다. 45년 8.15해방이후 민족에 모든 권력을 빼앗기게 됨으로서 자주권을 상실했고 매판 독점자본가들에 의한 기형적인 자본착취사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봉건적 잔재가 사회구석 구석에서 반쪽 성을 짓누르고 있는 봉건사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지와 조건에 놓여있는 남한여성의 삶을 변화하는 데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여성'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나서는 문제이기에 여성이 자매애로 똘똘뭉쳐 험난하지만 가야할 길을 걸어 갑시다 .

이에 남녀대협은 각 대학의 서로의 모범을 전파하고 여학생운동을 고립분산적이지 아니라 통일적으로 전개하여 김영삼 정권의 반여성정책을 까발리고 미국의 여성 침탈까지 막아내어 새조국 건설에 남녀대협 5만 여학우가 우뚝서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여학생운동의 발전은 자주 민주 통일된 세상에 중요한 주춧돌과 토대가 될것입니다. 여학일꾼들 영차영차!!

기간 방중에 우리일꾼들의 모습은 출근이 정례화되어있지 못하고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지 못해서 여학생운동에 대한 깊이있는 고민이 지지부진했습니다. 이제 개강이 되어 학우들로 일렁이는 교정에서 간부로서는 막막함과 관성적인 자세로 임할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총노선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극복했으면 합니다. 3월의 반딧 종이조각이 아니라 앞으로 여학생운동을 어떻게 펼쳐 낼 것인가 깊이있게 여학생운동을 평가하고 전망을 세워내는 계기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이악스럽게 달라들어 밤낮할 것 없이 토론을 전개합시다.

## 1.사상적 측면

역사발전에 따라 여성들이 자기위치를 자각하고 자기의 요구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세월에 억눌려왔던 여성들의 분노가 올바른 사상과 전략전술을 정립하지 못해 갖가지 논란과 편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학생운동도 문제나열식 소모적인 사업을 거듭함에 따라 여학우를 단순히 대상화시키지 않고 스스로 깨우치고, 진단을 통해, 주체적인 몸짓으로 사물을 접할수 있는 주체여성의 상을 밝히자는 것이 95 사상적 목표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간부들의 사상이 철저히 민중들 즉 학우대중을 기반으로 단련되어지는 과정이 요구되어졌습니다.

한해를 돌아보면 모범도 창출하고 전과도 하였으나 여전히 일관된 흐름속에서 우리운동이 펼쳐지지 못하고 간부들이 실무화된 경향과 학우대중속에 들어가지 못한 관료주의적인 모습이 남아있습니다. 이는 간부의 안정적인 조직생활과 실천력의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토론> 자기대학의 사업이 어떠한 사상적 기초로 전개되었는지 살펴보고 성과와 오류, 한계를 명확히 파악합니다.

“자주 민주 통일의 주체로서  
여성의 자주화 실현하자.”

민중의 권리의식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도 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사회에서의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또 일정 정부가 기업주등 지배세력이 수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진정으로 민의를 반영하기보다 정략적으로 이용해왔습니다. 정권의 태생적 한계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서 여성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고 떠들지만 남성과 여성을 대립분열시키면서 식민지자본주의 사회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여성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남한사회의 주요모순인 미제국주의로부터 해방하는 것입니다. 같은 피제배계급속에 기득권을 쥐고 있는 남성과의 투쟁, 복지차원의 투쟁으로는 안되는 것입니다. 식민지 반자본주의 남한사회의 변혁은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기본으로 이루어 집니다.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이 어느 것이 먼저랄 것이 없이 민족해방의 실현을 내세우면 계급해방을 밀접히 연결시켜 많은 대중을 추동화하여 나아가듯 성해방 또한 민족해방, 계급해방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2천만 여성을 변혁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필수적으로 병행할 과정이란 것입니다.

여학생운동의 정치사상적 과제는 첫째,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들이 변혁의 당당한 주체로 나서는 데는 남성보다 뛰어넘어야 할 장애가 더 많아 남한 2천만 여성을 자신의 삶에 주체로부터 변혁의 주체로 일떠세우는 것입니다. 이는 선도적이고 조직적인 운동은 지도속에서 전개되어야 합니다. 사회총체적으로 의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성차별성은 어느 개인 자각에 의해서만 깨질수 없고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의 기득권세력과의 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둘째, 낮은 봉건사상과의 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뿌리깊은 여성비하의식은 몇번의 교양으로 깨어지기 힘듭니다.

이러한 정치사상적 과제를 잘해명하기 위해서는 려학우들의 처지와 조건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자본주의의 왜곡된 가치관에 표류하고 있는 변화된 지점도 잘 짚어보아야 합니다. 새내기일때는 인간관계를 잘맺어보려고 노력하지만 3.4학년이 되면 개인의 생활을 하며 무리지어 생활하고 끼리끼리 움직이게 됩니다. 또한 정치적 문제에 무관심하게 되고 취업준비에 몰두하며 좁은 생활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외모치장에만 신경쓰기도 합니다. 여대생이라는 특성상 자신의 노력여하로 자신의 처지가 달라진다는 자본주의의 자유경쟁조작으로 집단적으로 자아를 실현하는 행복감을 저버리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캐리어우먼상을 향해 도전하지만 그문은 좁고 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서 좌절하면 시집을 가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학을 시집잘가기 위한 간판으로 여겼던 시절과는 다르게 사회적인 지위를 위해 노력하고 자아를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운동의 성과입니다. 다만 자신을 억압하는 근본모순을 파악하지못하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집단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여학일꾼들이 학우속에 녹아나면서 학우를 자주 민주 통일의 주체로 세워내려는 끈기있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하겠습니다.

<토론> 96 여성운동의 슬로건 '여성이 열어갈 21세기 여성의 복지 인권의 시대로!' 조사하면서 토론해봅시다. (여성신문참조)  
여성에게 규정지어지는 사회성격은?

-----청년학생운동속에서 여학생운동의 지위와 역할-----

한총련에서도 계속적으로 다양하게 표출되는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안은 부문계열운동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학생회관계에서부터 난감해하며 변혁운동에 복무한다는 자긍심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변혁운동속에서 여학생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직까지는 큰 변혁요구에 걸맞는 역할을, 운동전개의 미성숙으로 잘 수행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여학일꾼 주체들로부터 우리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끊임없이 성실로 임한다면 머지않아 여학생운동은 본 궤도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원론적인 부분만 제시하고 토론을 통해 풍부화되었으면 합니다.

학생운동은 궁극적으로 어떠한 억압도 없는 자주적인간의 삶을 쟁취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그 과정이 남총련 강령에서도 밝히듯이 여성들의 특수한 처지와 조건으로부터 자주적 인간으로 자라나 해방조국과 주체적 민중의 삶을 지향하는 것이기에 변혁운동의 큰 흐름을 밀고 가는 중추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부문계열운동과는 다르게 여학우가 학생회의 주인으로 나서지 못하기에 학생회장악으로 학우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광범위한 운동을 전개할수 있는 체계를 갖춘 유일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여활동가들이 사회진출을 앞두고 여성민중의 삶을 제대로 바라보고 자신

의 삶을 고민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대생의 계층적 특성상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지 않으면 자기운동의 길에서 좌절하거나 편향의 길을 걷게 됩니다.

@ 학생회와 간담회를 조직하여 교양과 논의의 장이 되도록 합니다.

@ 중앙과 논의해 여학사업을 전체화하고 여학간부의 총화가 이루어지도록 총화 구조를 마련합니다.

## 2. 조직적 측면

95 여학생운동발전의 열쇠는 간부에게 있기에 혁신 도약하는 자세가 요구되며 모든 문제를 주체에서 찾자는 것이었습니다. 실천과제로는 첫째, 변혁운동에 함께 복무하는 여활동가들로부터 식민지 청년여성의 삶을 어떻게 하는지 밝혀내는 여활가 모임을 세워내자는 것이었습니다. 대학별로 진행정도는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사업방도를 고민중이며 계속적으로 여학일꾼과 조직국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둘째, 각 단위에 소모임건설에 주력하자는 것인데 여성문제 커리의 정형도 나오지못하고 소모임 주체 연석회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앞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남여대협의 정책적 지도가 필요합니다. 셋째, 여학생회의 뿌리 과여부를 집중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과여부장학교, 확대운영위를 여는 등 성과를 많이 남겼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되어 있습니다.

“간고분투, 자력갱생의 자세로

여학생운동 토대구축하고

간부사업에 총력을 기울이자.”

여학생운동을 풀어내는 조직체계에 맞는 운영을 해내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필코 우리 힘으로 여학우의 신뢰속에서 조직역량을 축성해야 할 것입니다. 단위 학생회의 인식부재나 사업의 괴리에서 제기될수도 있겠지만 주체적인 노력으로 극복될것입니다. 또한 간부혁신 단련사업과 핵심발굴양성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겠습니다. 제일 중요한것 은 어떠한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끈질기에 해내고 마는 불요불굴의 정신입니다.

# 총여 총화구조 건설하자

- 중앙이 지도력을 가지고 학우대중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간부의 활동력과 학우대중의 요구를 올바르게 수렴하여 정책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간 중앙 간부들이 뚝뚝뚝쳐 조직사상생활을 탄탄하게 전개하지 못하고 단절된 사업속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총학생회 중앙의 총화구조의 논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간부 개개인의 생활 고민 사업작풍을 총화하고 여학생운동의 질적인 발전을 가져올수 있도록 자체구조를 건설해야하겠습니다. 이 총화구조는 간부들의 합의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논의를 정례화하여 대표자를 중심으로 모든것이 총화되도록 합시다.

# 과여발특위를 건설하자

- 과여부사업강화에 대해서 매년 이야기하고 있다가 구체적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여부수준이 다양하고 주체가 튼튼하지 못하거나 사업내용을 생산하지 못함으로 과여학우를 자기대중으로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회장과 단여, 과여부의 호흡이 맞지 않아 애를 먹고 있습니다. 과여부발전특별위원회 (이하 과여발특위)를 건설하여 과여부주체의 정기적인 모임속에서 산적해 있는 문제를 중앙과 같이 풀어내자는 것입니다.

# 소모임운영의 정형을 창출하자.

- 소모임을 통해 여학우를 자기대중으로 장악할수 있는 토대가 되고 핵심발굴과 양성의 장이되며 여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하는데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형식과 내용면에서 다양하게 운영하자고 하지만 대학에서는 막막한 것이 사실입니다.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고민속에서 풀어갑시다.

# 여활가대회를 열자.

- 여학일꾼과 학생회 여성간부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여성민중의 삶을 자신의 처지로 인식하기 위해 여활동가들의 집체적인 교양과 결의의 장이 담보되어야겠습니다.

✓ # 간부교육사업에 총력을....

- 대개 여학간부들이 혁명에 대한 낙관을 가지지 못하고 패배적인 사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단위보다 조직 사상생활을 튼튼히 하도록 간부사업주체를 마련합시다.

### 3. 대중적인 측면

대중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학우를 주인주체를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5만 여학우의 이해와 요구의 적극적 수렴으로 여학생운동의 정형을 창출하자”  
일상적인 정치사상전과 목적의식적인 만남을 갖자고 누차 이야기 하지만 집단적  
인 합의와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바로 학우를 대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 일상적인 학우의식화로 여학생운동의 질적인 발전을 가져오자.”

지금도 우리운동의 현실은 여학생회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  
의 처지와 조건을 개선하는 정당한 투쟁으로부터 식민지 사회 전반적인 모순을 인  
식하게 되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취업문제, 학내 성문제를 학우대  
중이 인식하도록 대중교양학교와 일상선전을 하지만 이것은 운동의 시작이지 끝  
이 아닙니다. 자보선전을 하더라도 신문이나 문건을 그대로 쓰는 것보다 자기 가  
끼이에 있는 친구에게 쓰듯이 논리력과 작은 실천이라도 할수 있도록 담아내야  
합니다.

96년에는 실천력을 가지고 깊이있는 대중사업을 펼쳐내도록 합시다.

<토론> 기간 대중사업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혁신의 지점은요?

% 반민족 반통일 반자주 세력과의 투쟁을 주동적으로 전개하자.

\* 민주역사의 새지평을 열어가는 총선승리 안아오자

- 총선승리는 대선자금공개, 오월학살자 전원처벌투쟁을 전개하고 허구적인 개  
혁을 폭로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여학생회가 주동적으로 전개해야 할 내  
용은 미국강점이후 줄곧 여성을 정권의 이용물 표발으로 이용해왔던 역사와 기만  
적인 김영삼의 여성정책을 학우대중과 명확히 평가하고 반김영삼의식을 확대시켜  
야겠습니다.

\* 정신대문제 올해에는 기어이 청년여학생의 투쟁으로 해결하자.

- 유엔인권위에서 일본의 정신대만행은 전쟁중 강간범죄라고 밝히고 손해배상과  
명예회복을 하라고 발표했지만 피해당국인 한국정부는 관심도 없고 여전히 외세  
앞에서 찢찢매고만 있습니다. 이북 여성들의 적극적인 투쟁과 더불어 힘차게 전  
개합시다.

\* 반미자주화투쟁을 선봉에서 전개하자.

지난해 미군의 지하철 시민구타사건이 4천만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한미행정협  
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에는  
한미행정협정개정, 미군기지반환투쟁을 전개하여 한반도 악의 근원을 몰아냅니다.

% 민주주의 투쟁 - 가장 바다